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nd the Father's Parenting Support on the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 with Young Children

김은영(Eun Young Kim), 이주연(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father's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nd her parenting behavior. For the goal,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general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examined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nd her spouse's support on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50 mothers whose infants and toddlers were attending a day-care cent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younger than 29 years o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aged 35 to 39. Also, the working mothers felt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unemployed mothers. Second, when the main effect and interaction effects among the mother's parenting guilt, parenting behaviors, and the father's parenting support are analysed,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only rejection·control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 means that even if the mother feels a lot of parenting guilt, if the father's parenting support is high, her rejection·control parenting behaviors tend to appear les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father's parenting suppo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duction of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 어머니의 양육죄책감(mother's parenting guilt), 아버지 양육지원(father's parenting support),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I. 서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보람을 느끼는 등 심리적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시간적, 신체적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육방식이나 양육행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심리적인 불만족과 위축, 죄책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양육죄책감이란 자녀양육의 과정 중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양육에 대한 양심의 가책, 후회, 수치로 정의된다(J. Sung, 2011). Y. Oh(2009)는 사회심리학적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s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7, E-mail: idscot@chonnam.ac.kr

입장에서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따라 죄책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모가 증가하였음에도 자녀양육이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남아 있어, 양육죄책감을 이야기 할 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대해 주로 논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자녀 양육이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및 가정에 속한 어머니가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양육죄책감은 실제 자신의 양육행동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양육행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유발되며(Y. Baek, 2007; H. Kim & K. Kim, 2009; J. Kim, 2008; M. Kim, 2011; N. Kim, 2011; H. Noh, 2003; H. Park & H. Moon, 2012), 어머니의 질 높은 양육 투자에 대한 문화적인 기대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A. Rotkirch, 2009). 그런데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친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받았던 양육지원 네트워크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방향이 양육기능의 사회화 및 공보육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의 타인양육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길 경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H. Kwon, 2007)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할 경우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동안 자녀에게 질적으로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N. Kim, 2011; J. Sung, 2011). 취업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경쟁열은 자녀 교육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많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충분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을 양육스트레스의 일부로 여기는 관점(H. Kim, 2005; B. Park, 2006; K. Woo, 2007)에서 본다면, 적정 수준의 양육죄책감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양육가치관이나 기대, 양육방식, 그리고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제고 및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양육죄책감은 양육에 대한 긴장감을 야기하여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나타나는 양육죄책감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며, 특히 어머니가 타인양육 등으로 자녀와 분리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 슬픔, 걱정 등의 정서 상태는 격리불안이라는 부정적 증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E. Hock, S. McBride, & M. Gnezda,

1989).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양육죄책감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I. Jang, 2001; M. Kim, 2011; Y. Kim, 2004; H. Park & H. Moon, 2012). 즉, 양육죄책감은 어머니의 자존감을 낮추고, 긴장감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 양심의 가책 등을 느끼게 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 아동발달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죄책감은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과 같은 양육 관련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다. 양육죄책감의 개념은 주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서 다루어졌으며(H. Kim, 2005; Y. Lee, 2008; B. Park, 2006; E. Pyun, 2004; K. Woo, 2007), 양육죄책감을 주요 변인으로 연구한 경우에도 대개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죄책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양육죄책감에 관련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즉, 어머니 및 자녀의 특성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가 있으며(Y. Baek, 2007; I. Jang, 2001; J. Kim, 2008; J. Kim, 2009; M. Kim, 2011; N. Kim, 2011; M. B. Mann & K. R. Thornberg, 1987), 양육죄책감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Y. Baek, 2007; Y. Kim, 2004; M. Shin, 1996; H. Park & H. Moon, 2012).

먼저, 어머니 및 자녀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과 학력, 그리고 취업여부 등을 주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20대 어머니가 양육죄책감이 가장 높고, 30대 어머니가 가장 낮다는 보고가 있다(J. Kim, 2009). 그러나 M. Kim (2011)과 N. Kim(2011)은 어머니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 지각에서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보다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Y. Baek, 2007; I. Jang, 2001; J. Kim, 2008; M. Kim, 2011; N. Kim, 2011).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H. Park & H. Moon, 2012). 어머니 학력에 따른 차이는 대학원 졸업 이상인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어머니보다 양육죄책감이 낮다는 보고(N. Kim, 2011)와 전문대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순으로 죄책감이 높았다는 보고(Y. Kim, 2007), 그리고 차이가 없다는 보고(J. Kim, 2009; M. Kim, 2011) 등 여러 결과가 혼재한다.

자녀 관련 변인으로는 대개 연령과 성별 등이 주로 분석되었는데, M. B. Mann and K. R. Thornberg(1987)는 자녀

의 월령은 어머니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N. Kim(2011), J. Kim(2009)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성별은, 6~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죄책감을 조사한 M. B. Mann and K. R. Thornberg(1987)는 자녀가 여자인 경우 양육죄책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N. Kim(2011)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다(J. Kim, 2009; N. Kim, 2011). 이처럼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등 어머니 관련 변인과 연령, 성별, 자녀수 등 자녀 관련 변인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로부터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결론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하였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두 번째 연구방향으로 양육죄책감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한 연구들은 대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M. Shin(1996)은 양육죄책감을 느끼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과잉보상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아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Y. Kim(2004)은 역할수행 미흡에 따르는 죄책감을 적게 느낄수록 애정적이고, 성취적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H. Park and H. Moon(2012)은 교육수준, 취업유무, 양육죄책감, 양육스트레스 중 양육죄책감이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보였음을 보고했다. Y. Baek(2007)은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은 애정-적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돌봄으로 인한 죄책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은 합리-비합리 양육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나누어 비교한 연구들에 의하면, I. Jang(2001)은 양육죄책감이 높은 취업모는 자녀에 대해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반면, 양육죄책감이 높은 비취업모는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 오히려 자녀를 귀찮아하거나 일관성 없이 대해 더욱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했다. M. Kim(2011)에 따르면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양육죄책감은 과보호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행동, 거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반응성 양육행동은 비취업모에서만 영향이 있었다. 즉, 비취업모가 느끼는 양육죄책감은 취업모에 비해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I. Lee(1993)는 심리적 갈등과 부담은 비취업모에게 우울을 야기하여 자신의 정체감과 자녀의 장애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 신체적 피로 및 구속감 그리고 가족 구성원간 불화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양육하는 비일관적인

태도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죄책감을 많이 느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줄어든다면 자녀 양육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임을 보고한다(J. Belsky, 1984; K. Crnic, M. Greenberg, A. Ragozin, M. Robinson, & R. Basham, 1983; E. Lee & M. Lee, 1997).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Crnic et al.(1983)은 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배우자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웃에서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어머니의 민감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했다. J. Belsky(1984)는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덜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며 강제적 통제를 덜 사용하였다(K. Jennings, V. Stagg & R. Connors, 1991). 또한 Y. Hwang(1997)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부모들이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지원은 어머니의 적응과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J. Belsky, S. Woodworth, & K. Crnic, 1996; J. Yang, 2002). 즉, 아버지의 양육도움은 어머니의 거부, 통제 및 반응적인 양육태도 등 대부분의 양육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 변인이며(S. Park & E. Koh, 2003), 아버지의 지원을 많이 받는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와 자녀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H. Moon, 2001). 또한 S. Kim and H. Choi(2007)는 아버지의 지지가 높은 어머니는 지지가 낮은 어머니 보다 온정과 격려를 많이 사용하여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지지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R. R. Abidin, 1992; J. Belsky et al., 1996). 더욱이 취업모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아버지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혹은 아버지의 양육지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며, 아버지의 양육지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관련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 세 개 변인의 관계를 함께 살

떠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Anderson et al.(1986)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지지와 동조 의식은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생긴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보고하였다(as cited in J. Jung, 2008). 또한 S. Choung(2006)은 배우자의 지지가 많을수록 취업모의 직장가 가정에서의 갈등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J. Kim(2009)도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사용이 많을수록 자녀 양육죄책감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J. Kim & J. Lee, 2005; K. Kim, 2009; H. Moon, 2004)도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이나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상호작용 혹은 완충효과 기능이 있다(S. Cohen & T. A. Willis, 1985).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 죄책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과 부정적 관계가 있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양육행동과 긍정적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죄책감과 양육지원의 두 변인이 함께 작용한다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의 부정적인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양육행동 및 아버지의 양육지원 세 개 변인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 및 아버지 양육지원의 주효과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육죄책감의 정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지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이 실제적으로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죄책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아버지 양육지원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자녀의 발달연령, 성별, 형제유무/ 가계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죄책감, 아버지 양육지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광주, 전남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50명이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그 연구대상을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양육죄책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양육능력 부족 등으로 느끼는 일반적인 양육죄책감 이외에 보육기관 등의 타인양육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를 보육기관양육 등 대리양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및 그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35~39세 138명(39.4%), 30~34세 132명(37.7%)으로 30대가 약 8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131명(37.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9명(36.8%), 전문대 졸업 90명(25.7%)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비취업모가 145명(41.4%)이었으며, 취업모는 205명(58.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181명(51.7%)으로 남아 169명(48.3%)보다 많았다. 또한 형제아가 283명(80.9%), 외동아가 67명(19.1%)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101명(28.86%),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249명(71.14%)으로 유아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가계소득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2011년 도시근로자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 약 472만원(Statistics Korea, 2012)보다 다소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도시와 농어촌 등 도시 외 지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표집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측정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보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 의해 보고되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주요 변수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1)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S. Park and S. Lee(1990)의 양육행동척도와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50)

Variable	N(%)	Variable	N(%)	
Mother's age	Under 29	37(10.6)	0	9(2.6)
	30~34	132(37.7)	1	36(10.3)
	35~39	138(39.4)	2	56(16.0)
	Over 40	43(12.3)	3	76(21.7)
Mother's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129(36.8)	4	79(22.6)
	College	90(25.7)	5	51(14.6)
	Over university	131(37.4)	6	43(12.3)
Employment status	Employed	145(41.4)	under 200	82(23.4)
	Non-employed	205(58.6)	201~300	109(31.1)
Child's sex	Male	169(48.3)	301~400	79(22.6)
	Female	181(51.7)	401~500	42(12.0)
Child's sibling	None	67(19.1)	501~600	21(6.0)
	Yes	283(80.9)	over 601	17(4.9)

참고하여 W. Yu(1998)가 제작한 양육행동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정사항은 예를 들어 “자녀의 교우관계나 유치원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다”의 문항을 “자녀의 교우관계나 보육시설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다”와 같이 수정한 것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내 기분에 따라 자녀에게 행동한다”의 문항은 “내 기분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게 자녀를 대한다”로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가르쳐준다”를 “자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도와준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 척도는 애정(7문항), 일관성(7문항), 거부·통제(7문항), 과보호(7문항), 독립성 지향(6문항)의 5개 하위요인과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신뢰도가 .60이하로 낮은 일관성 요인과 독립성 지향 요인을 제외하고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양육행동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점수는 높을수록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양육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애정 양육행동’이란 자녀에게 따뜻하며 친절히 대하고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이며, ‘거부·통제 양육행동’이란 자녀에게 불만과 비난을 표현하거나 무시하거나 벌을 주고 성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강요하는 행동을 말한다. ‘과보호 양육행동’이란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으면서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주거나 뒷바라지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W. Yu, 1998). 본 연구에서 산출한 요인별 Cronbach's α 값은 애정 양육행동은 .86이며,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82, 과보호 양육행동은 .82였다.

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는 I. Jang(2001)이 개발한 양육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K. Kim and H. Kang(1997)이 개발한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척도’와 M. B. Mann and K. R. Thornberg(1987)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Maternal Guilt Scale)’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낌을 의미한다.

문항별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에 대한 죄책감’은 질적 양육에 관한 죄책감, 신경질 또는 화풀이에 관한 죄책감,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죄책감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 인지, 성격 발달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였다.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은 부모역할 수행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을 말한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은 일상적인 죄책감 외에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와 타인양육이라는 조건에서 오는 죄책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녀 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 역할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녀를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어머니들이 겪는 심리적 죄책감을 말한다. 연구자에 따라 해당 하위요인들을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요인 구분 없이 전체문항의 합산 점수를 양육죄책감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값)는 .88이었다.

3) 아버지 양육지원

아버지의 양육지원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지원 정도를 측정된 것으로, J. Park(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 25문항을 수정하여 12문항으로 구성된 S. Shin(199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인정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 직접적으로 필요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지지', 기회나 방법,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지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척도의 Cronbach's α 값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원은 .90, 물질적지원은 .81, 정보적지원은 .88, 전체 아버지 양육지원은 .94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8월 16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의 보육시설 8곳과 전라남도 K군에 위치한 5곳의 어린이집에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기관에 방문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영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총 39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설문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먼저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é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 양육죄책감 및 아버지 양육지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행동, 양육죄책감 및 아버지 양육지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 양육행동은 어머니 및 자녀 변인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8, p<.01$). 구체적으로, 가계소득이 401만원 이상($M=4.06, SD=.51$)인 집단이 200만원 이하($M=3.82, SD=.56$)인 집단 보다 더 높은 애정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여, 가계소득이 401만원 이상인 집단이 자녀를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통제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의 형제유무($t=2.00, p<.05$)와 가계소득($F=3.67,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형제아를 둔 어머니 집단($M=2.42, SD=.63$)이 외동아를 둔 어머니 집단($M=2.26, SD=.52$)보다 거부·통제 양육행동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집단($M=2.58, SD=.69$)이 201~300만원인 집단($M=2.31, SD=.60$)에 비해 더 높은 거부·통제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였다.

과보호 양육행동은 자녀의 형제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6, p<.01$). 구체적으로, 외동아를 둔 어머니 집단의 평균은 3.02점으로 형제아를 둔 어머니 집단이 응답한 2.79점 보다 더 높은 과보호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였다. 즉, 외동아를 둔 어머니가 형제아를 둔 어머니보다 자녀를 과보호하여 양육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연령($F=5.50, p<.01$)과 취업유무($t=-2.4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M=2.90, SD=.74$)인 집단이 35~39세($M=2.47, SD=.61$)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양육죄책감 점수를 보고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모($M=2.68, SD=.66$)가 비취업모($M=2.51, SD=.61$)보다 양육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양육지원은 자녀의 성별($t=2.29, p<.05$)과 가계소득($F=4.01, p<.01$)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를 둔 어머니($M=3.94, SD=.77$)가 남아를 둔 어머니($M=3.76, SD=.71$)보다 아버지의 양육지원 점수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 즉, 여아를 둔 어머니가 남아를 둔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높은 양육지원을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M=3.98, SD=.63$)/ $M=3.98, SD=.72$)이 200만원 이하($M=3.63, SD=.82$)인 집단보다 더 높은 아버지의 양육지원 점수를 응답하였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Table 2. Differences in Parenting Behavior,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as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350)

Variable	Groups	N	Parenting behavior			Maternal guilt	Father's parenting support
			Affection	Rejection · Control	Over-protection		
			M(SD)	M(SD)	M(SD)	M(SD)	M(SD)
Mother's age	Under 29	37	3.92(.52)	2.27(.49)	2.86(.53)	2.90(.74) a	3.82(.77)
	30~34	132	3.91(.51)	2.38(.61)	2.92(.59)	2.68(.60) ab	3.87(.77)
	35~39	138	3.96(.48)	2.47(.57)	2.74(.69)	2.47(.61) b	3.86(.75)
	Over 40	43	4.03(.55)	2.28(.81)	2.84(.63)	2.59(.68) ab	3.84(.68)
	<i>F</i>			.68	1.68	1.84	5.50**
Mother's education levels	Under high school	129	3.94(.53)	2.34(.62)	2.78(.67)	2.65(.67)	3.74(.87)
	College	90	3.89(.53)	2.42(.61)	2.84(.62)	2.60(.70)	3.87(.67)
	Over university	131	3.98(.46)	2.42(.61)	2.87(.60)	2.58(.57)	3.96(.65)
	<i>F</i>			.76	.66	.68	.48
Mother's employment	Non-employed	145	3.96(.50)	2.38(.59)	2.81(.60)	2.51(.61)	3.88(.74)
	Employed	205	3.93(.51)	2.40(.63)	2.85(.65)	2.68(.66)	3.84(.76)
	<i>t</i>		.55	-.38	-.46	-2.47*	.49
Child's age	Infant (under 2)	101	3.98(.52)	3.98(.52)	3.98(.52)	3.98(.52)	3.98(.52)
	Early child (over 3)	249	3.92(.50)	3.92(.50)	3.92(.50)	3.92(.50)	3.92(.50)
	<i>t</i>		.99	.99	.99	.99	.99
Child's sex	Male	169	3.91(.52)	2.42(.63)	2.81(.61)	2.61(.64)	3.76(.71)
	Female	181	3.97(.49)	2.36(.60)	2.85(.65)	2.61(.65)	3.94(.77)
	<i>t</i>		-1.01	.91	-.57	.02	-2.29*
Child's sibling	None	67	4.05(.51)	2.26(.52)	3.02(.59)	2.70(.68)	3.80(.69)
	Yes	283	3.92(.50)	2.42(.63)	2.79(.64)	2.59(.63)	3.87(.76)
	<i>t</i>		1.96	-2.00*	2.76**	1.33	-.65
Family income (10,000 won)	Under 200	82	3.82(.56) b	2.58(.69) a	2.88(.67)	2.73(.61)	3.63(.82) b
	201~300	109	3.94(.50) ab	2.31(.60) b	2.76(.65)	2.55(.76)	3.85(.76) ab
	301~400	79	3.95(.42) ab	2.36(.52) ab	2.82(.61)	2.55(.61)	3.98(.63) a
	Over 401	80	4.06(.51) b	2.33(.60) ab	2.90(.60)	2.62(.52)	3.98(.72) a
	<i>F</i>			3.18*	3.67**	.92	1.50

* $p < .05$, ** $p < .01$, *** $p < .001$

양육지원 점수를 평균 $\pm 1/2$ 표준편차의 기준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D. C. Howell, 2014). 이 중 중간 집단을 제외한 상위 30%와 하위 30% 비율의 두 집단을 사용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는 양육죄책감의 평균이 2.67, 표준편차 .61로 중간 이하의 점수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아버지 양육지원은 평균 3.86, 표준편차 .65로 다소 높은 점수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변인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양극 집단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 애정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따른 어머니의 애정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3> 참조), 어머니의 양육죄책감($F=6.68$, $p<.05$)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은 애정 양육행동($F=19.50$, $p<.001$)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다. 반면, 애정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Table 3.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on Mother's Affection

		Variable	SS	df	MS	F
		Maternal guilt	1.63	1	1.63	6.68*
		Father's parenting support	4.75	1	4.75	19.50***
Affection		Maternal guilt * Father's parenting support	.24	1	.24	.97
		Error	36.03	148	.24	
		Total	2377.70	152		

* $p < .05$, *** $p < .001$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Affection Associated with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Maternal guilt	Father's parenting support	N	M	SD
		Low	Low	28	3.89	.41
			High	40	4.17	.55
			Total	68	4.06	.51
		High	Low	45	3.60	.51
Affection	High		High	39	4.04	.48
			Total	84	3.81	.54
		Total	Low	73	3.71	.49
			High	79	4.11	.51
			Total	152	3.92	.54

아버지의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죄책감이 낮은 집단($M=4.06$, $SD=.51$)은 양육죄책감이 높은 집단($M=3.81$, $SD=.54$)에 비해 높은 애정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높은 집단($M=4.11$, $SD=.51$)은 양육지원이 낮은 집단($M=3.71$, $SD=.49$)에 비해 높은 애정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였다(<Table 4> 참조). 즉, 양육죄책감을 적게 느낄 때와 아버지로부터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 때 자녀를 더 애정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2) 거부·통제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따른 거부·통제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Table 6>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거부·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양육죄책감의 주효과($F=6.49$, $p<.05$)와 아버지 양육지원의 주효과($F=14.13$,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양육죄책감*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F=4.77$, $p<.05$).

각각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양육죄책감이 높은 집단($M=2.59$, $SD=.74$)이 낮은 집단($M=2.18$, $SD=.54$)에 비해 거부·통제 양육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였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낮은 집단($M=2.58$, $SD=.71$)이 높은 집단($M=2.24$, $SD=.63$)에 비해 더 높은 거부·통제 양육행동 점수를 지각하였다. 즉,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아버지의 지지가 적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거부·통제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는 <Figure 1>에 잘 나타나있다. 양육죄책감을 적게 느끼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지원 정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거부·통제 양육행동의 점수가 낮았던 반면,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높은 집단($M=2.33$, $SD=.65$)에 비해 낮은 집단($M=2.82$, $SD=.74$)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통제 양육행동 점수가 월등히 높게 응답되었다. 즉,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적으면 자녀에게 보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결과는 양육죄책감이 높더라도 남편으로

Table 5.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on Mother's Rejection-control

		Variable	SS	df	MS	F
Rejection · Control		Maternal guilt	5.73	1	5.73	14.13***
		Father's parenting support	2.63	1	2.63	6.49*
		Maternal guilt * Father's parenting support	1.93	1	1.93	4.77*
		Error	59.98	148	.41	
		Total	951.55	152		

* $p < .05$, *** $p < .001$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Rejection · control Associated with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Maternal guilt	Father's parenting support	N	M	SD
Rejection · Control	Low		Low	28	2.20	.46
			High	40	2.16	.60
			Total	68	2.18	.54
	High		Low	45	2.82	.74
			High	39	2.33	.65
			Total	84	2.59	.74
	Total		Low	73	2.58	.71
			High	79	2.24	.63
			Total	152	2.41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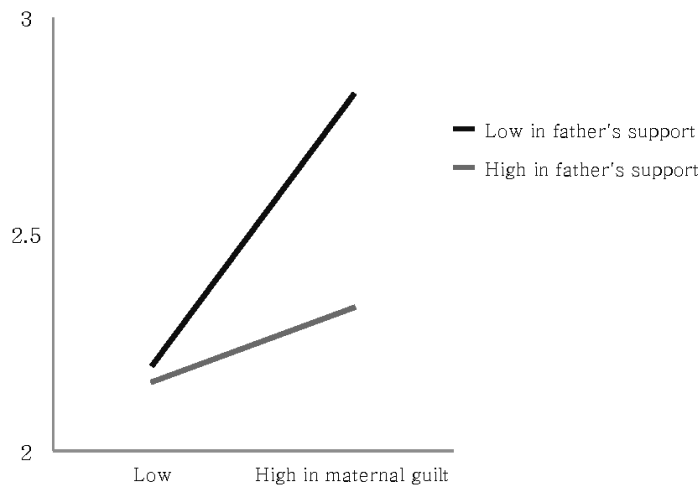


Figure 1.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on Mother's Rejection · control

부터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 때 거부 · 통제적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남편 양육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3) 과보호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따른 과보호 양육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7>에 의하면, 양육죄책감은 과보호 양육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7. Interaction Effects of Maternal Guilt and Father' Parenting Support on Mother's Over-protection

Variable		SS	df	MS	F
Over protection	Maternal guilt	8.04	1	8.04	24.13***
	Father's parenting support	.01	1	.01	.02
	Maternal guilt * Father's parenting support	.07	1	.07	.22
	Error	49.30	148	.33	
	Total	1263.30	152		

*** $p < .001$

Table 8.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Over-protection Associated with Maternal Guilt and Father's Parenting Support

Maternal guilt		Father's parenting support	N	M	SD
Over protection	Low	Low	28	2.53	.49
		High	40	2.58	.61
		Total	68	2.56	.56
	High	Low	45	3.04	.63
		High	39	3.01	.52
		Total	84	3.02	.58
	Total	Low	73	2.84	.63
		High	79	2.79	.61
		Total	152	2.82	.62

주효과를 보이나($F=24.13, p<.001$),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따른 과보호 양육행동에서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양육죄책감*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죄책감이 높은 집단($M=3.02, SD=.58$)이 낮은 집단($M=2.56, SD=.56$)에 비해 더 높은 과보호 양육행동 점수를 보고하였다(<Table 8> 참조). 이를 통해 어머니가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낄 때 자녀를 과보호하여 양육한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하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죄책감, 아버지 양육지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의 형제유무와 가계소득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자녀가 외동아인 경우 형제아인 경우보다 과보호 양육행동은 높게,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낮게 보고하였다. 이는 자녀가 한명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는 보호적 행동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동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중하고, 모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과보호를 하기 쉽다는 K. Kong (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애정 양육행동은 낮게,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높게 인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빈곤가정일수록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통제적 특성이 강하고 신체적 처벌 등의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M. Kwon(2001)의 연구 결과와 소득이 낮을수록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는 H. Choi(2004)의 연구와 유사하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덜 애정적이고 거부·통제적으로 대한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어머니 연령과 취업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즉, 29세 이하 어머니 집단이 양육죄책감을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35~39세 어머니가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첫 자녀 양육여부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31.3세임을 고려해 볼 때(Statistics Korea, 2012), 35~39세 어머니는 자녀 양육경험이나 이를 통해 습득한 양육지식이 29세 이하의 어머니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29세 이하의 어머니는 첫 자녀 양육에서 오는 경험 부족으로 자녀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까봐 혹은 첫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지 못하고 보육기관에 보내는 데에서 오는 양육죄책감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양육죄책감을 양육스트레스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연구들(H. Kim, 2005; Y. Lee, 2008; B. Park, 2006; E. Pyun, 2004; K. Woo, 2007)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가능성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Y. Kim & Y. Song, 2007)에 의해 지지된다. Y. Kim and Y. Song(2007)은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찍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육죄책감 역시 양육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20대의 경우 결혼 생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제적, 심리적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은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육죄책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Y. Baek, 2007; I. Jang, 2001; H. Noh, 2003; J. Sung, 2011). 또 다른 이유는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취업모는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비취업모는 자녀의 사회성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해서 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E. Jang, 2007).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인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는가에 초점을 둘 때, 취업모는 어머니 자신인 반면 비취업모는 자녀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취업모가 양육죄책감이 높은 것은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를 길러야한다는 전통적인 사고가 남아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지원은 자녀의 성별과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를 둔 어머니가 남아를 둔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양육지원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였다.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M. Song(2006)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소득이 많음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아버지의 지원을 높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원 측정도구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은 물론 물질적 지원도 함께 포함한다. 가계소득이 높을 경우 아버지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아버지 양육지원 점수도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양육죄책감은 애정 양육행동, 과보호 양육행동, 거부·통제 양육행동 모두에서 주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버지 양육지원은 애정 양육행동, 거부·통제 양육행동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양육죄책감을 적게 느낄 때와 아버지로부터의 양육지원이 많다고 인식할 때 긍정적 양육행동은 많이 보고하고, 부정적 양육행동은 적게 보고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효과는 거부·통제 양육행동에서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양육죄책감을 덜 느끼는 집단은 아버지의 양육지원의 정도에 관계없이 거부·통제 양육행동을 낮게 보고하였으나,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지원이 적다고 인식할 때, 거부·통제 양육행동을 월등히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죄책감을 많이 느끼더라도 아버지로부터 양육지원을 많이 받는다면 자녀를 거부·통제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가 외동아인 경우 형제아인 경우보다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우려하여 과보호 양육행동은 높게 보고되었고,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낮게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동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 할 경우 과보호 및 거부·통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도모하도록 돕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애정 양육행동은 낮게, 거부·통제 양육행동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경우, 양육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결여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양육죄책감은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유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29세 이하인 어머니가 35~39세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첫 자녀 양육여부 및 경제적, 심리적 불

안정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29세 이하의 어머니의 경우 특화된 양육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양육지원을 적게 받는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경우 아버지 양육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죄책감을 적게 느낄 때와 아버지로부터의 양육지원이 많다고 인식할 때 긍정적 양육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부정적 양육행동이 적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죄책감과 거부·통제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통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늘리는 것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부부 공동양육의 중요성 및 아버지의 양육 및 지원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광주, 전남 K군에 한정하여 표집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성을 갖는다. 즉,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추후에는 지역을 더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분석이나 상호작용 분석 시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양육죄책감의 원인을 구분하여 하위요인별로 분석하고, 아버지 양육지원의 종류 역시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아버지 양육지원 등의 인과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 아닌 양육죄책감과 양육지원의 상호집단에 따른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인 간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아버지의 양육지원 간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본 연구의 모든 자료 수집은 어머니 보고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지원 변인의 경우 실제적인 양육지원 정도라기보다는 아버지 양육지원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아버지 양육

지원 변인이 본 연구의 주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모두 어머니 혹은 자녀와 관련된 변인들이라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뿐 아니라 아버지 보고를 통해 실제적인 아버지 양육지원을 측정하고 더불어 아버지 관련 배경 변인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양육죄책감은 그 동안 자녀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다루어져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어져 왔으나, 양육죄책감을 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버지 양육지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죄책감과 아버지 양육지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중재요인으로서 아버지 양육지원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고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증가시켜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도모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REFERENCE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ek, Y.-S. (2007). *The effect stress and guilt of mothers in raising children have in their attitude of raisi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Woodworth, S., & Crnic, K. (1996). Trouble in the Second year: Three questions about family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7*, 556-578.
- Choi, H.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views and child reading attitudes of mothers having preschoolers*. Unpublished ma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Korea.
- Choung, S. I. (2006). *A study on the interaction between work-family of married company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ohen, S., & Willi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rnic, K, Greenberg, M., Ragozin, A., Robinson, M., & Basham, R.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1), 209-217.
- Hock, E., McBride, S., & Gnezda, M.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 Howell, D. C. (2014). *Fundamental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8th Ed.). Belmont, CA: Wadsworth.
- Hwang, Y.-J. (1997).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and social support on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E.-H. (2007).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mother s who send their children to nurse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 Jang, I.-S. (2001). *A study on the effect that guilt in foster care, separation anxiety and fostering stress influence the fostering attitud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Jennings, K., Stagg, V., & Connors, R. (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5), 966-976.
- Jung, J. Y. (2008). *The effect of 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self-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ir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O., & Kim, K. H. (2009). The effects of supporting service for child care affecting parenting-guilt and family fun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9, 305-328.
- Kim, H.-J.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of child rearing between a working mother in a dual-income family and a full-time housekeep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 Lee, J. Y.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mother's child rearing stres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6(5), 245-261.
- Kim, J. A. (2008). *Effects of mother's separate anxiety, parenting guilt feeling & parenting efficacy on children's social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 Kim, J.-I. (2009). *A study on guilt feeling and family function of two-income families: from a viewpoint of utilizing social support net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Kim, K. W. (2009). *Mother's parenting stress as related to maternal employment, job characteristics, and spouse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H. (2011). *Effects of mother's separate anxiety and parenting guilt-feeling on parenting behavior among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 Kim, N. H. (2011). *Effect on the guilty conscience due to parenting from the day care centers' satisfaction of parent: Focused on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 Choi, H. Y. (2007).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by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their husbands' support o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8), 1-11.
- Kim, Y. J., & Song, Y. S. (2007).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bout infants and parental stress. *Journal of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ies*, 12(4), 475-493.
- Kim, Y.-H. (2004).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nity training program for reducing the maternal guilt of working mothers: with Special regard to the object relation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Kong, K.-A. (2011). *Discourse analysis 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only child*. Unpublished ma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M.-S. (2001). *A comparison study about the antisocial problem actions of poverty children and common district children: Centering arou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children of permanent-rental-apartments and common distri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H.-A. (2007). *A study on nurturing policy of Korean*

-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Kimhae, Korea.
- Lee, E. H., & Lee, M. R. (1996).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support network and perceptions of parenting task difficul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7(2), 61-78.
- Lee, I. S. (1993). *Degree of father's participation on child-rearing in relation to demographic variables, parents' sex-role stereotypes and conjugal power stru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S.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Kyunggi-do, Korea.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oon, H. (2001). Relevant variables of effective parental disciplinary practic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2(1), 35-49.
- Moon, H. (2004).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11), 109-122.
- Noh, H. J. (2003). *Differences between the employed and the unemployed mothers in parenting guilt and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Oh, Y. J. (2000). *The study on built and healing of the guil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B.-J. (2006).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with inf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H. J., & Moon, H. (2012). The effects of a mother's guilty conscience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2), pp.121-137.
- Park, S. Y., & Koh, E. J. (2003). Infant day-care and family factors on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7), 91-106.
- Pyun, E.-S. (2004). *Mother's role of recognition and the parenting stress of working mothers having children from infants to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Rotkirch, A. (2009).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 Shin, M. H. (1996).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employment status,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early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 J. (1997). *The influence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their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ong, M.-H. (2006).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elf-efficacy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Statistics Korea. (2012). Korean Population 50 million. Retrieve June, 22, 2012, from <http://kostat.go.kr/>
- Sung, J.-W. (2011). *Mother's parenting guilt related variables: Depending o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the child's developmental st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Woo, K.-M. (2007). *Parenting stress by job satisfaction and social network in the kindergarten teachers having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Yang, J.-H. (2002). *The influence of husband's cooperation and mother's efficacy on the parenting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Suwon, Korea.
- Yu, W. Y. (1998).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Focusing on the parenting stressor,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10), 65-78.

접수일 : 2013년 11월 14일

심사일 : 2013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2월 12일